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및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go-State, Life Position and Family System of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and Female Adolescents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배 영 미
교수 이 형 실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 Young Mi Bae

Prof. : Hyong Sil Lee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Pregnancies of unmarried women are one of the most serious sex problems because they can negatively affect the lives and development of both unwed mothers and their extramarital children. The number of unwed adolescent mothers is growing recently, extending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go-state, life position and family systems that may cause unmarried pregnanc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of 79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and 82 female adolesc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and t-test using the SPSS WIN 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go-state elements of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were distributed evenly in general and this falls under the All B(BBBBB) type of ego-gram, just like the adolescents. As for the subject adolescent mothers, CP was the lowest among the 5 egos.
2. As to the life position, the position of "I'm OK, You're OK" was the highest for both groups, with slight differences.

3. With regard to the family system types sorted by the combination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levels, both the adolescent mothers and adolescents tended to perceive their families as somewhat-balanced or balanced families.
4. While the two groups of adolescent mothers and adolescents showed, on the whole, the same types for all the indicators like abo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ore detailed elements.

주제어(Key Words): 청소년 미혼모(unmarried adolescent mothers), 자아상태(ego-state), 인생태도(life position), 가족체계(family system)

I. 서론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기타 청소년 문제나 일탈 행동과는 구별된다. 첫째, 임신이 자의에 의한 임신 뿐 아니라 성폭력 등 타의에 의한 임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문화의 개방화로 인한 자유로운 이성교제 과정 중의 성행동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둘째, 남녀간 성행동 후에도 여성만이 겪게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Spear(1997)는 청소년 임신을 비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김만지, 2001b).

이렇듯 청소년 임신 문제가 다른 청소년 비행과 구별되지만, 미혼여성의 임신문제는 청소년의 기타 일탈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보다 청소년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청소년 미혼모 자신은 출산 전 건강위험, 동료로부터의 소외, 학교 중퇴,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Santelli & Kirby, 1992; Clark, 1992) 및 재임신(Stevens-Simon, Dolgan, Kelly, & Singer, 1997; Ricketts, 1996; Maynard & Rangarajan, 1994; Mott, 1986)의 문제를 겪는다(김만지, 2001a). Longwe(1996)는 청소년 임신은 어린 여성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고, Elster, Lamb, Peters, Kahn & Tavaré(1987)도 임신을 경험한 10대의 미혼모들은 상당수 다시 미혼모가 되거나 다른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으로 미혼모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미혼모 자신이 키웠을 경우에도 감정적·교육적·경제적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반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윤형욱, 1993), 기아, 입양되지 못한 요보호 아동들의 시설입소 문제, 그리고 입양되었을 경우에도 자아정체감의 상실, 소외감, 문화적 갈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한 비행 등 또 다른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이중적인 성태도로 인해, 임신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매도하는 등 미혼모가 된 여러 가지 이유는 배제한 채 이들을 일탈자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미혼모들은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출산 후 사회 재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배미영(2000)도 미혼모가 겪게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를 심리적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미혼모 관련 연구는 '후속조치' 이면서 '구조적 문제'를 다룬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서비스 차원에 관한 연구'(노현조, 2000; 박수천, 1998; 박인선, 1998; 이원순, 1999; 조성훈, 1999; 함영희, 1996)가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청소년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거론하면서 이들의 예방과 교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미혼모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더욱이 미혼모 문제가 기타 일탈 행동과 구별된다는 점에서도 미혼모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미혼모 뿐 아니라 성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교육, 그리고 치료적 차원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을 알아보는 기초 연구로,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특성 중 '자아상태, 인생태도'와 가족의 기능적 특성 중 '가족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미혼모 문제로 표출될 수 있는 개인심리적 특성의 부적응 측면 및 가족체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요인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는 특성들로서, 김규수와 류태보(1998), 김현수(1988), 류태보(1996), 박미정(1999) 등은 Beme의 교류분석(TA)을 도구로 하여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면서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성격과 인간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높이기, 생활자세교정 등의 분야에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가족적 요인에 관하여 크게 구조적 요인(Russell, 1994; South, 1999; Wu, 1996)과 기능적 요인(Fisher, 1989; Miller & Bingham, 1989; Moore, Simms & Betsy 1986; Rodgers, 1983)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 중 가족의 구조적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차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나라 미혼모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서비스 차원에 관한 연구임을 감안할 때 미혼모의 발생 요인 중 가족의 기능적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의 기능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체계의 특성 또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요인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도수경, 1990; 민하영, 1992; 서대선, 1994; 황수영, 2000).

현재 각각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적용된 기존 연구는 없으므로, 미혼모 문제로 표출될 수 있는 각 개인심리적 특성의 부적응 측면과 이러한 개인심리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준 환경 중 가족체계 특성을 함께 규명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교사 및 상

담가들이 미혼모가 임신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미혼모의 자아상태 특성은 어떠한가, 일반 청소년의 특성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 미혼모의 인생태도 특성은 어떠한가, 일반 청소년의 특성과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체계 특성과 유형은 어떠한가, 일반 청소년의 가족체계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요인 중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 특성과 가족체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1. 자아상태(구조분석) 및 인생태도와 청소년의 적응

교류분석의 입장에서 부적응적 행동이란 부적응적 인생태도(I'm OK, You're OK 이외의 인생태도)를 선택하고, 그런 인생태도에 들어맞는 생활자세를 선택하고, 오염된 자아상태를 지닌 경우이다(안정현, 2000). Beme(1961, 1964)에 의하면 자아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는 그 개인의 자아상태들간의 경계선이 지나치게 이완되어 혼합(contamination)현상을 초래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배타(exclusion)현상을 초래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세가지 자아상태가 각각 제 기능을 못하고 에너지 배분에 편재가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 행동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인생태도 면에서의 부적응은 '자타긍정(I'm OK, You're OK)'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자타긍정(I'm OK, You're OK) 인생태도'는 가장 건전한 상태로 이러한 생활자세를 가진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며 건설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의식적이고 언어적인 결단을 행한다. 둘째, '자기부정, 타인긍정(I'm not OK, You're OK) 인생태도'는 부적응의 정도가 가장 약한 삶의 자세로, 개인은 즐겁지 않더라도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자기긍정, 타인부정(I'm OK, You're not OK) 인생태도'는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힐책하는 자세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초연하려는 거만한 자세로, 편집증적 또는 범죄형적 자세라고도 한다. 이런 자세를 선택하는 개인은 대부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넷째, '자타부정(I'm not OK, You're not OK)의 인생태도'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혹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세, 즉 절망과 실망, 자멸적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세의 개인들은 우울하고 비경쟁적이며 타인들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개인 문제나 취업, 인간관계문제 등에서 부적응적인 면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생태도는 한 가지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한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옮겨갈 수 있으며, 네 가지 인생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도가 바로 그 개인의 행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인생태도가 된다(박현주, 1996).

또한 기본적인 인생태도와 자아상태의 이고그램(ego-gram)을 결부시켜서도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고그램에서 FC자아가 AC자아보다 높으면 '자기긍정' 이고 반대로 AC자아가 FC자아보다 높을 경우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또한 NP자아가 CP자아보다 높으면 '타인긍정' 이고 반대로 CP자아가 NP자아보다 높을 경우 '타인부정'을 나타낸다(김규수·류태보, 1998: 180)

이러한 교류분석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주, 1997; 류태보, 1996; 박미정, 1999)를 살펴보면, 일본 비행 청소년들의 이고그램 특성에서는 NP자아와 FC자아가 높은 M형의 특성을 보였다(박미정, 1999). 이는 국내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1999)의 연구, 소년원 수감자들

대상으로 한 류태보(1996)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형태는 A자아 상태에 의한 통합조정 기능이 저하되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현수(1988)도 비행 청소년의 이고그램으로 M형을 제시하였는데 AC자아가 상당히 낮은 데에다 A자아도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은 완고하고 무계획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순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FC자아가 높다는 것은 행동 우선을 의미하는데 FC자아와 동시에 NP자아도 높은 점은 극히 인간적이어서 '친구들의 어려움을 돌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단, CP자아가 낮음으로써 선악 판단이 미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였다. 김규수와 류태보(1998: 82)도 M형의 이고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호기심이 왕성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점은 아주 다행이지만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점과 생활 전반에 통일된 방식을 볼 수 없는 것이 최대의 결점' 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자아상태와 인생태도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상태를 알고 그 특징을 잘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심리적 에너지의 분배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적응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Olson, Portner & Sprenkle (1983)이 개발한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원래 Olson의 그의 동료들(1983)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거나 낮은 극단가족에서 비행 청소년이 더 많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가족에서 이 가설이 일부 입증(도수경, 1990; 임용우, 1984)되었다. 민하영(1992)도 가족의 응집력과 청소년의 비행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응집력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고, 임용우(1984)는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영역 전부가 가족체계 유형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단 남녀 모두 균형을

이루는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의 순서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귀연(1993)은 일반 청소년 집단 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이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고, 가족적응성 수준에서 경직된 가족의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느꼈으며 매우 융통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 가족과 문제청소년 가족을 비교하거나 일반 청소년 가족만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을 때만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응집성이 높을 때 또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을 때는 청소년의 비행이 적다고 나타났다(김윤희, 1989; 민하영, 1992; 임용우, 1984). 또한 일반 청소년 집단 과 가족적응성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귀연과 최보가(1993)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 집단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 집단이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적었으며, 적응성이 높을 수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안양희(1988)는 가족의 응집성은 청소년의 부적응에 관계가 있으나, 적응력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결과에서 공통적인 것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 경우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황수영(2000)은 정상 및 비행 청소년 집단 간에 가족 기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정상 및 비행 청소년 집단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 집단 이나 적응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대선(1994)은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대한 가족(부, 모, 자녀)의 지각 불일치가 심할수록 역기능적 가족체계 속에서 순환적 상호작용에 의해 품행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공통적인 것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

경우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경우와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시기는 그들의 행동에 있어 일반 청소년 집단 과 적응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자발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 가정과 일반 청소년 가정의 가족체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현재 미혼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에 의한 통계자료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전국에 있는 8군데 미혼모 보호시설 중 서울, 경기도, 대구, 총 세 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출산을 앞두거나 산후 조리 중인 미혼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86부이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7부를 제외한 79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비교집단으로는 본 연구의 미혼모 집단과 비슷한 연령층인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였는데, 2001년 9월 경기도 부천시역의 여고 학생 95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82부이다. 본 연구 대상 청소년의 사회적 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자아상태 (구조분석)

자아상태(이코그램)분석과 인생태도 분석(OK-gram)은 Berne의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TA)의 4가지 분석 중 기본이 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Berne의 제자인 Dusay(1977)가

〈표 1〉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집단	청소년 미혼모 집단		일반 청소년 집단	
		N (%)		N (%)	
연령	16-18세	31 (39.2)		78 (95.1)	
	19-21세	44 (55.7)		4 (4.9)	
	22-24세	4 (5.1)		-	
임신 및 분만 여부	임신 6개월 이하	2 (2.5)		-	
	임신 7-8개월	18 (22.8)		-	
	임신 9-10개월	49 (62.0)		-	
	분만 후 1개월 이내	10 (12.7)		-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2.5)		-	
	중 (재·중퇴·졸)	15 (19.0)		-	
	고 (재·휴학·중퇴·졸)	59 (74.7)		82(100.0)	
	대학교 (중퇴)	3 (3.8)		-	
부모님 생존 여부	친부와 친모	42 (53.2)		59 (72.0)	
	편부모	14 (17.8)		13 (15.9)	
	친부와 계모·친모와 계부	16 (20.3)		8 (9.8)	
	부모 모두 돌아가심	4 (5.1)		1 (1.2)	
	기타	3 (3.8)		1 (1.2)	
부모 학력	전혀 다니지 않음	1 (1.3)	2 (2.5)	-	-
	초등학교	16 (20.3)	20 (25.3)	1 (1.2)	1 (1.2)
	중학교	11 (13.9)	15 (19.0)	3 (3.7)	4 (4.9)
	고등학교	20 (25.3)	23 (29.1)	14 (17.1)	35 (42.7)
	대학교	6 (7.6)	3 (3.8)	56 (68.3)	38 (46.3)
	대학교이상(대학원)	1 (1.3)	1 (1.3)	8 (9.8)	3 (3.7)
	무응답	24 (30.4)	15 (19.0)	-	1 (1.2)
가족의 총수입	100만원 이하	26 (32.9)		8 (9.8)	
	100-200만원	15 (19.0)		42 (51.2)	
	200-300만원	5 (6.3)		23 (28.0)	
	300만원 이상	6 (7.6)		4 (4.9)	
	무응답	27 (34.2)		5 (6.1)	
총 계		79(100.0)		82(100.0)	

고안해 낸 것을 한국 교류분석협회에서 청소년에게 알맞도록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자아상태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는 5가지 자아 모두 10문항씩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는 0~20점이 되며, 각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할 때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김규수·류태보, 1998). 그러나 한 개 점수의 의미보다는 5가지 하위 척도의 상관을 보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P $\alpha = .77$, NP $\alpha = .72$, A $\alpha = .81$, FC $\alpha = .70$, AC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2) 인생태도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Beme의 제자인 Dusay (1977)가 고안해 낸 것을 한국 교류분석협회에서 청소년에게 알맞도록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인생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는 자기긍정 10문항, 자기부정 10문항, 타인긍정 10문항, 타인부정 10문항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는 1~20점이며, 4개의 점수로 '인생태도의 섬'을 그리게 된다. 각 사분면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태도가 바로 그 개인의 행동을 유지하는 기본적

인 인생태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자기긍정 $\alpha = .68$, 자기부정 $\alpha = .75$, 타인긍정 $\alpha = .71$, 타인부정 $\alpha = .72$ 로 나타났다.

3)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가족체계 유형

가족체계 유형 구분 및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Olson, Portner & Lavee(1985)가 제작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 FACES III'를 한상분(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 공동 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의해 측정된다.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10문항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점수의 범위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 각각에서 10~5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FACES III의 신뢰도는 응집성 차원이 $\alpha = .82$, 적응성 차원이 $\alpha = .84$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분석에 이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 및 일반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FACES III에 의한 집단분류법으로 분류한 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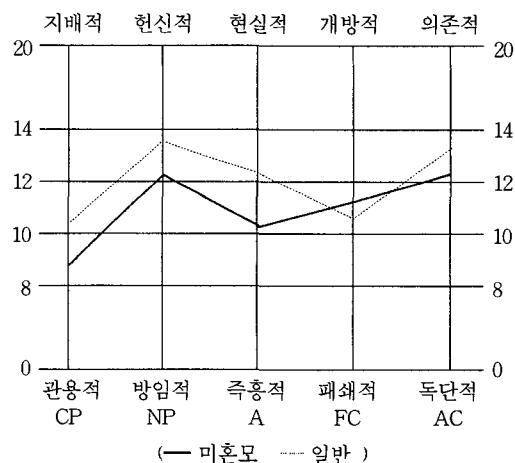
셋째,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가족체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가족체계 유형을 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 비교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의 자아상태 각 요소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두 집단의 이고그램을 살펴보면, 5가지 자아 모두가 8점에서 14점 사이에 있는 중용형(ALL B형: BBBB형)이다. 김규수와 류태보(1998)는 중용형의 특성에 대해 '책임감이나 윤리감, 동정심, 합리성, 감정의 개방, 마음 씀씀이나 타협심 전체가 과부족이 없는 상태에 있으며 성격적



<그림 1>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이고그램

<표 2>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집단의 자아상태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

자아상태	청소년 미혼모 집단 (N=79)	일반 청소년 집단 (N=82)	t
	M (SD)	M (SD)	
CP	8.81 (3.33)	10.12 (3.53)	-3.24***
NP	12.14 (3.51)	13.34 (2.96)	-2.22*
A	10.33 (3.46)	12.03 (3.81)	-4.37***
FC	11.20 (3.49)	10.83 (3.22)	-2.07*
AC	12.10 (3.49)	13.23 (3.98)	-2.3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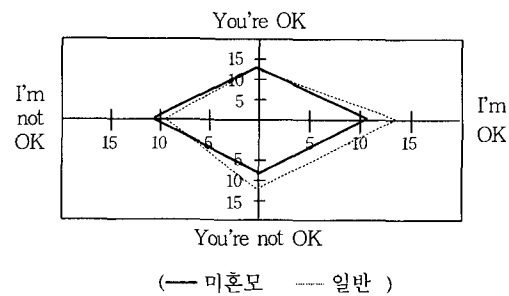
으로 감소하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형. 취업, 적성 등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한 마디로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성격상 작은 일에 노력을 기울리하여 낙오자가 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5가지 자아 중 CP가 가장 낮은 상태인데, 김현수(1988)는 낮은 CP의 특성은 선악 판단의 미발달로 인해 비행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미혼모나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적 특성이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P 자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용형 이고그램 특성에서 올 수 있는 부정적 속성에 대해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 두 집단의 이고그램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5가지 자아요소간에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CP자아와 A자아에 있어 일반 청소년들이 미혼모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청소년이 청소년 미혼모에 비해 지배적, 비판적, 도덕적, 배타적, 편견적, 정의적인 CP자아의 특성과, 이성적, 객관적, 합리적, 사실적, 분석적, 현실적인 A자아의 특성을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배려적, 보호적, 동정적, 보호적인 NP자아의 특성과 순응적, 소극적, 의존적인 AC자아의 특성이 일반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가지 자아 중 청소년 미혼모에게 높게 나타난 자아는 FC자아로 나타났는데, 본능적, 적극적, 창조적, 직관적, 감정적, 자발적, 행동적,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FC자아의 특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인생태도 비교

청소년 미혼모의 인생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표 3에서 보면 거의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타인긍정, 자기긍정, 자기부정, 타인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Ernst(1971)가 제시했던 인생태도의 목장에 비유해 볼 때(그림 2 참조), 사분면의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난 '자타긍정'의 인생태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인생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도가 바로 그 개인의 행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인생태도가 된다(박현주, 1996).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인생태도와는 같은 결과이며, 기타 비행 청소년들의 인생태도인 '자기부정, 타인긍정'의 인생태도(김현주, 1997)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인생태도 하위 요소간에는 통계적으로 '자기긍정 인생태도'와 '타인긍정 인생태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청소년들이 청소년 미혼모보다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인생태도의 목장

〈표 3〉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집단의 인생태도의 평균 차이 검증

인생태도	청소년 미혼모 (N=79)	일반 청소년 (N=80)	t
	M (SD)	M (SD)	
자기긍정 (I'm OK)	10.53 (3.24)	13.84 (4.41)	-9.70***
자기긍정 (I'm not OK)	10.46 (3.83)	9.77 (3.23)	1.08
타인긍정 (You're OK)	12.33 (3.41)	11.25 (3.54)	3.53***
타인부정 (You're not OK)	9.75 (3.61)	10.36 (2.92)	-6.3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가족체계 비교

1) 가족응집성

Olson(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응집성 점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 미혼모 가족과 일반 청소년 가족, 두 집단 모두 평균으로는 분리된 집단에 속하지만 두 집단의 가족응집성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미혼모 가족의 경우 과잉분리(27명, 34.1%), 분리(25명, 31.7%), 연결된(20명, 25.3%) 수준의 순서이고, 일반 청소년의 가족의 경우 연결된(35명, 42.7%), 분리(29명, 35.4%), 과잉분리(12명, 14.6%) 수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민하영(1992)과 전귀연(1993)이 가족의 응집력과 청소년의 비행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응집력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높다고 밝힌 것과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다. 응집성이 매우 높은 가족에서 비행이 더 많으며, 응집성이 중간수준 정도인 분리집단이나 연결된 집단에서 가족 기능성이 가장 효과적이며 청소년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과는 다소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한상분(1992)이 지적했

듯이 문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기능적인 가족에 대한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미국문화권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가정분위기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시해왔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애정적 접촉이 강조되어 왔다. 비록 서구의 가치관이 도입됨으로써 해서 한국가족구조와 기능이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가정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응집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긍정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다(전귀연, 1993).

2)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 점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가족적응성의 평균점수로 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융통적인 수준에 속하나, 이러한 가족적응성 수준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미혼모 가정의 경우, 융통적(30명, 38.0%) 수준과 매우 융통적(20명, 25.3%) 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성 수준이 구조적이거나 융통적일수록 가족이

<표 4>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집단의 가족응집성 수준별 점수와 집단차이 검증

가족응집성 수준		과잉분리	분리	연결된	매우 연결된	M (SD)	t
집 단	점수범위	10-25	26-32	33-39	40-50		
청소년 미혼모 집단 (N=79)	빈도 (%)	27(34.1)	25(31.7)	20(25.3)	7(8.9)	29.08 (7.85)	-3.38 ***
일반 청소년 집단 (N=82)		12(14.6)	29(35.4)	35(42.7)	6(7.3)	31.70 (9.54)	

*** p < .001

<표 5>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가족적응성 수준별 점수와 집단차이 검증

가족응집성 수준		경 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M (SD)	t
집 단	점수범위	10-21	22-27	28-34	35-50		
청소년 미혼모 집단 (N=79)	빈도 (%)	13(16.5)	16(20.3)	30(38.0)	20(25.3)	29.65 (7.85)	-3.87***
일반 청소년 집단 (N=82)		8(9.8)	17(20.7)	37(45.1)	20(24.4)	32.77 (8.95)	

*** p < .001

기능적이라는 곡선적 관계나 매우 융통적 수준일수록 기능적이라는 직선적 관계, 어느 가설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소년 가정의 가족적응성 수준과도 같은 결과로, 일반 청소년 가정에서도 융통적(37명, 45.1%)과 매우 융통적(20명, 24.4%) 수준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의 부적응에 관계가 있으나, 적응성은 부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안양희(198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황수영(2000)은 정상 및 비행 청소년 집단 간에 가족 기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정상 및 비행 청소년 집단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족응집성이나 적응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가족체계 유형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점수에 따라 분류된 가족체계유형별 빈도가 청소년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 유형은 집단에 상관없이 나타났다. 즉 청소년 미혼모 가정과 일반 청소년 가정 모두에서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가족과는 다른 결과로, 가족체계가 균형적일수록 기능적이라는 Olson의 순환모델의 가설에 의하면 미혼모문제는 기타 문제행동과는 구별된다는 가정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미혼모 문제가 기타 청소년문제와 구별된다는 것을 가정해주는 결과가

기도 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족응집성이나 적응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황수영(2000)의 연구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 중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가족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일반 청소년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혼모 문제는 특히 미혼모 문제가 기타 일탈 행동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미혼모 뿐 아니라 성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 그리고 치료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체계유형은 크게는 모두 같은 유형적 특성(-중용형, 자타긍정 인생태도, 분리된 집단, 융통적인 집단, 약간 균형적인 가족-)을 보였으나, 각 세부요소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미혼모와 성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아상태는 대체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데,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중용형(ALL B형: BBBB형)의 이고그램에 속한다. 중용형의 특성 중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 인내심 부족' 등의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에게 5가지 자아 중 CP가 가장 낮은 상태인데, 낮은 CP의 특성은 선악 판단의 미발달로 인해 비행으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CP자아와 A자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NP자아, AC자아를 높여주면서, FC자아가 높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 즉각적인 면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이고그램만으로

<표 6> 청소년 미혼모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가족체계유형 분포

변인	집단 청소년 미혼모 집단 N (%)	일반 청소년 집단 N (%)	비고
극단가족	11 (13.9)	7 (8.5)	$\chi^2 = 1.50$ df = 3 N.S
중간범위가족	23 (29.1)	23 (28.0)	
약간 균형적인 가족	32 (40.5)	36 (42.7)	
균형가족	13 (16.5)	17 (20.7)	
합계	79(100.0)	82(100.0)	

개인의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면접이나 행동 관찰을 더한다면 진단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코그램의 자아상태를 알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심리적 에너지의 분배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둘째, 인생태도 면에 있어서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 모두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자타공정 인생태도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부적응적 특성을 보완하는 교육 및 상담장에서 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점수에 따라 분류된 가족체계유형별 빈도를 보면, 청소년 미혼모 및 일반 청소년 가정 모두에서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타공정 인생태도와 함께 기능적인 가족체계는 이들에게 있어 교육의 장에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추후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비확률적이고 의도적인 표집이다. 미혼모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뿐 아니라 시설 외 미혼모, 그리고 인공유산한 미혼모, 자연유산된 미혼모, 출산한 미혼모, 출산 후 본인이 양육하는 미혼모, 또한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모와 결혼경험이 있는 미혼모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조사대상 선정상의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가 미혼모를 대표한다고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 가족체계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반복연구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 대상 미혼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미혼모로서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청소년 연령대의 미혼모였다. 그러나 인공유산을 하는 미혼모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의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 미혼모에는 자의로 임신하거나 타의로 임신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이들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미혼모가 되는 사례가 다양한 만큼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례에 대해 질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규수, 류태보(1998). 교류분석치료 -성격개선·상담·심리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만지(2001a).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8), 53-65.
- 김만지(2001b). 임신한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27-48.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1982). 미혼모 실태를 통한 대책과 방향. 사회복지, 72, 103-121.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심(1988). 미혼모 욕구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모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1997). 교류분석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자율성과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현조(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수경(1990). 가출경험 소녀와 비가출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태보(1996).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미혼모 정의 <http://www.women.hanyang.ac.kr/information/FIRST.htm>.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미정(1999). 가출청소년의 자아상태 변화를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천(1998). 미혼모 실태 및 예방·보호정책 방향. 춘계학술대회 연세집. <http://rich.chonnam.ac.kr>
- 박민선(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춘계학술대회 연세집. <http://rich.chonnam.ac.kr>
- 박현주(1996). 교류분석에 의한 재결단 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인간관계 및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영(2000). 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 -미혼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선(1994). 청소년의 품행장애와 가족관계 특성.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홍숙(1995).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51-62
- 스기다미네야스(1988). 교류분석. 김현수 역, 서울: 민지사.
- 안순덕, 강정숙, 김원, 김연옥, 김경애, 이주원, 제갈정(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 규명과 복지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정현(2000).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재숙(1999). 아가장래결정 집단프로그램이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형옥(1993). 부산지역 미혼모의 성격형, 임신, 분만 실태 및 향후 생활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홍(1981). 미혼모 실태와 예방: 제1회 여성보호 세미나. 홀트아동복지회.
- 이원순(1999).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1984).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주숙남(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연옥(1997).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훈(1999).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기본법 <http://www.youthnara.pe.kr/qc20.htm>.
- 한국부인회 총본부(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대한 자료집. 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영희(1996). 미혼모의 실태,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여성복지세미나. 서울: 서울부녀복지연합회.
- 황수영(2000). 정상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가족기능과 비행향상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lster, A. B., Lamb, L., Peters, L., Kahn, J., & Tavare, J. (1987). Judicial involvement and conduct problems of fathers of infants born to adolescent mothers. *Pediatrics*, 79, 230-234.
- Fisher, T. D. (1989). Family sexual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Journal of*

- Marriage and the Family*, 51, 637-639.
- Longwe, S. H. (1996). Adolescent Pregnancy: When It Is a Problem, What Is the Solution?[Part 1 of 2]. *Reproductive Health Matters*, 8, 110-120.
- Miller, B. C. & Bingham, C. R. (1989). Family configuration in relation to the sexual behavior of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99-506.
- Moore, K. M., Simms, C. & Betsy, C. L. (1986), *Choice and Circumstanc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Olson, D. H., Portner, J.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3-28.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Muxen M. J., Larsen A. S. & Wilson, M. A.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Rodgers, J. (1983). Family configuration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Population and Environment*, 6, 73-83.
- Russell, S. T. (1994). Life course antecedents of premarital conception in Great Brit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80-492.
- South, S. J. (1999). Historical changes and life course variation in the determinants of premarital childbea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52-763.
- Wu, L. L. (1996).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income, and income instability on the risk of a premarital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86-406.